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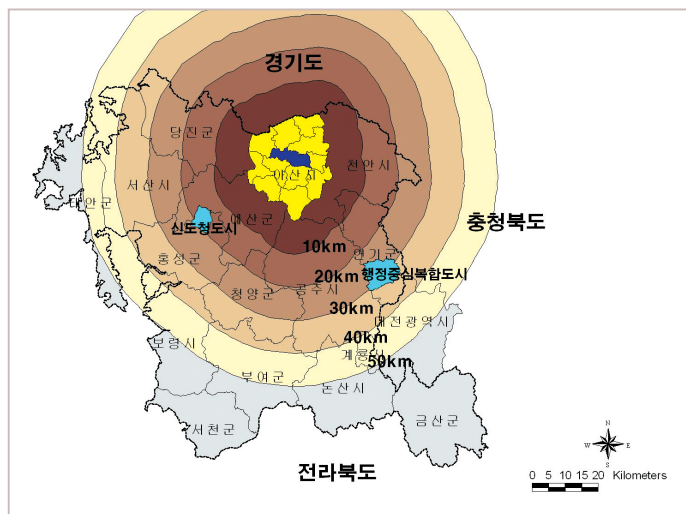
# 현충사의 고장, 염치읍

오용준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일반현황

아산시에 속해 있는 염치읍은 현충사의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염치읍은 1995년 아산군과 온양시가 통합되기 이전에 아산군청사 소재지이었다. 지리적으로는 아산시 동부(온양동)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삼성전자가 위치한 탕정면, 서쪽으로 인주면, 북쪽으로 영인면, 음봉면과 인접해 있다. 지형은 북쪽의 산지와 곡교천 유역에 전개된 남쪽의 평야로 배산임수의 조건을 구비하여 주민의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한다. 염치읍의 면적은 42.2km<sup>2</sup>로 아산시 면적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2005년 현재 8,953명이다.

염치(鹽峙)라는 이름은 소금산을 뜻한다. 염치라는 지명은 현재의 염성리 부락과 쌍죽리의 중간지점에 야산이 있는데 이 산에 차돌이 온 산을 덮어서, 바라볼 때 마치 소금과 같이 희게 보이므로 염산이라 한데서 유래하여 염치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현 중방리를 이조 말엽에는 중방포(中枋浦)라 하였으며 봄에는 소금배가 드나들며 소금시장을 이루었다고도 한다.



염치읍 위치도

## 지역특성

염치읍은 아산시의 지리적 중심지로서 곡교천을 따라 동서 장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농업이 발달하고 현충사가 위치하여 아산시의 농업

및 역사문화 기능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다. 염치읍을 역사·문화·경관자원의 공간적 분포에서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특성이 있다.



이순신장군압송행렬

이순신마당극

개막행사

온양온천마라톤대회

성웅이순신축제전경

첫째, 현재 우리나라에 이순신만큼 전역에 걸쳐 유물과 유적이 산재해 있는 인물도 드물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아산 염치읍 방화산 아래에 위치한 현충사다. 아산지방 유생들이 숙종에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사당건립을 상소하여 1706년(숙종32년)에 세워졌고, 이듬해 ‘현충사’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현충사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어린시절 이광수의 『이순신전』에 심취하여 이순신을 숭모하게 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이후에도 이순신 선양사업을 구상하고 현충사 성역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경내에는 본전, 고택, 정각, 유물전시관, 활터 등이 있으며 임진왜란 중 이순신장



역사문화자원현장

## 충남의 도시9- 아산시 염치읍

군이 사용하던 많은 유품들이 잘 보존·전시되어 충무공의 유비무환, 애국애족 정신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와 함께 아산 성웅이순신축제는 1961년 온양문화제로 시작하여 2004년부터는 지금의 동명칭으로 변경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현충사는 아산시청에서 4.5km 남짓 떨어져 있으며, 참배객과 관람객을 포함하여 연간 100만 여명이 찾고 있다.

둘째, 염치읍내 위치한 은행나무거리는 2000년과 2001년에 산림청이 주최한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서 주최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염치읍 송곡리의 구지방도 624호선은 충무교를 지나 바로 우회전한 후 펼쳐지는 은행나무길로서 오른쪽으로는 곡교천이 한눈에 시원스럽게 펼쳐지며, 마치 은행나무 숲에 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은행나무 가로수가 잘 정비되어진 도로이다. 봄에는 강변에 유채꽃이 만발하여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 하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각기 다른 풍경과 색채, 자세를 보여주는 도로이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면 아름다운 은행나무길에서 가을을 기억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며, 편안함과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도로이다. 아산의 시목(市木)이기도 한 은행나무 350그루가 곡교천을 따라 10m 높이로 약 1.2km 정도 터널을 이루고 있다.

셋째, 염치읍에는 아산시민의 휴양·휴식 수변공간으로 곡교천과 염치저수지가 위치하고 있다. 염치읍 하단부에 위치한 곡교천은 국가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오염하천이라는 오명을 가졌지만, 건설교통부와 아산시는 곡교천일대와 주변부지, 은행나무 거리를 대상으로 친수환경 명소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염치읍 동정리, 석두리 일원에 위치한 염치저수지는 1950년에 설치되어 농업용수 저수지(유효저수량 3,059천톤)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운영관리는 한국농촌공사에서 맡고 있다. 저수지 인근 충무유원지에는 수영장·테니스장·낚시터·식당·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져 있어 하절기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다. 염치저수지 주변지



충무공 열이 스며있는 은행나무 길

역은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환경생태계는 양호하나 무분별한 레저 및 수상시설 설치로 환경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넷째, 염치읍은 지리적으로 아산만권신도시와 온양원도심과 인접하고 있어 도시와 농촌이 공생하는 도농혼주지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염치읍 하단의 세장형 주거지역은 농촌지역과 도시의 경계지대로서 국지적으로 농촌적 생활양식과 도시적 생활양식이 공존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염치읍 방현리에 2개소의 주말농장이 운영 중이며, 지역민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다. 이와 더불어 염성리 일원에는 정육점 식당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각종 매체홍보를 통해 전국적인 지명도도 높아지고 있어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다. 발안·안중을 통과하는 39번 국도를 달리다 아산시에 다다르기 전, 염치읍이라는 이정표를 따라 읍내로 들어서면 우체국 맞은편에 나란히 서 있는 세 곳의 한우식당을 볼 수 있다.



아산시 중심천인 곡교천



염치저수지



염치 주말농장



염성리 정육식당가



### 자원활용과 발전방향

염치읍은 곡교천과 배후구릉지로 구성되는 전형적인 농촌경관을 간직하고 있어 곡교천 유역의 논농사지역과 구릉지의 밭농사지역이 조화롭게 전개되어 도시민들에게 고향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지역이다. 온양원도심, 아산만권신도시 근교지역으로서 최근 5년간 인구가 5.8%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염치읍은 대도시의 주거기능 확산에 따라 도시민들의 농촌휴양 공간으로서 잠재력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장항선이 복선화되고 수도권 전철이 온양온천역까지 개통예정됨에 따라 수도권과 접근성이 용이하여 현충사를 찾는 외래관광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하여, 지역의 중심지 기능이 약화되어 전반적인 농촌서비스 기능이 미약하고, 기존의 공간 체계와 새로운 기능 입지 사이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또한, 농업 이외의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현충사에 대한 관광상품화가 미흡하여 역사자원과 관련된 3차산업이 거의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토지이용규제가 많아 계획적 개발이 곤란하기 때문인데, 현충사를 중심으로 500m 이내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전체 경지면적의 79%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염치읍은 이러한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앞서 살펴본 역사자원, 경관자원, 수변자원, 도농복합공간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우선, 현충사 관광객의 염치읍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충사는 연간 관람객 100만 명이라는 저변을 갖춘 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시환경이나 관람형태,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낙후되어 현충사의 전시기능 보강이 절실한 실정이다. 최근 현충사의 관람형태는 단체관람이나 참배객 이외의 관람목적은 미미한 상태인데, 그 이유는 수해여행과 같은 집단적 관람형태의 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노년층 및 가족관람객 증가에 따른 대비가 소홀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문화재청이 현충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충사를 단순한 전시기능 박물관이 아닌 이순신장군과 같은 세계적인 해군사령관이나 해양해전역사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세계의 해양역사와 충무교육의 중심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현충사의 자연과 역사자원은 문화관광지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 역할의 증대와 세심한 개발이 더해진다면 많은 사람이 찾는 장소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내 수변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추진 중인 곡교천 정비 사업은 친환경 테마하천의 시범사례로 육성·발전이 가능하여 아산시의 또 다른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곡교천~은행나무길~현충사 가는 길 등이 연계되면서 염치읍 자체가 관광상품화의 가능성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은행나무길의 차량통행기능을 차단하고 보행전용도로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곡교천 자체의 청정성 회복을 통해 생태교육장 및 휴양공간화하고, 기존 축제를 활성화하거나 곡교천 자전거 하이킹 축제 등과 같은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여 테마사업화한다면 내방객의 증가와 체류객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염치읍은 근교전원지역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전원형, 여가·휴양형 도시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 염치읍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자연자원 및 문화·관광자원의 중요성을 재발견하는 전환점을 전원마을개발사업을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생활양식에서 비롯되는 신규 공간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이고 전원형에 기초한 배후 농촌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농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도·농공생적 경제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역내 도농혼주지역에 도시영농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도입기능은 영농시설의 도입을 통한 자연체험과 함께 이용자들에게 역사·문화·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발신기능, 그리고 이를 통해 마을과 마을이 함께 하는 활력 있는 지역만들기를 위한 지역연대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염성리의 정육식당가를 정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염치한우를 지역특산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타깃수요층은 현충사의 연간방문객 100만명을 대상으로 하여 테마거리의 홍보를 강화한다면 한우테마마을의 상시 이용인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전문화 및 특성화된 한우 관련 집중형 상가를 수용한다면, 지역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